



영국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재정 인센티브가 가족구조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출판 (Publication of DWP research report 569: the impact of financial incentives in welfare systems on family structure)

영국 DWP는 재정 인센티브가 가족구조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문헌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보고서의 목적은 재정 인센티브가 가족의 구성, 해체 및 출산과 관련된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의 실증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변화하는 가족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세금 및 급여 제도가 가족 구조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한 영국 미디어의 보고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주요 내용

- 문헌조사결과, 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족구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소수자들을 위한 결혼과 동거에 관한 정책 개혁이 복지효과를 낳는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이러한 개혁이 가족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일관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 가족 해체에 관한 연구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복지제도의 개혁이 가족의 해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종합적으로, 재정 인센티브의 변화가 출산 및 한부모 가정을 결정(lone parenthood decisions) 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근거는 없다.

연구 방법

이번 연구는 영미권 국가군에서 1997년 이후 발간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는 과거의 개혁조치들이 복지 제도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그러나 가족 구조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 인센티브의 수준과 조치의 비용 효과성은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보고서 웹사이트: www.dwp.gov.uk/asd/asd5/rports2009-2010/rrep569.pdf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UK)
2009년 4월 2일
<원 문 링크 : <http://www.dwp.gov.uk/mediacentre/pressreleases/2009/apr/rr569-020409.asp> >

맞아, 지진 및 홍수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더 많은 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건설하고 보건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 보건 당국 및 병원 관계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병원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주요 조치들을 장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Dr Margaret Chan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온 인류가 이상 기후 현상과 무력분쟁에 보다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건의료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될 수 있도록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보건당국 및 병원 관계자들이 실시해야 하는 6가지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의 안전성 진단
2. 응급상황을 위한 보건 인력의 보호 및 훈련
3. 응급상황 대처 계획 마련
4. 충격에 탄력적인 병원 디자인 및 건축
5. 병원 안정성에 관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실시
6. 의료장비, 의약품 및 기타공급품의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실시

병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몇몇 국가들이 취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

세계 보건의 날: 응급 상황에서 안전한 병원 만들기 (World Health Day: focus on making hospitals safe in emergencies)

세계보건기구는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 일본, 파키스탄, 페루와 같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들은 건물 건축 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도입해왔다.

- 멕시코는 Hospital Safety Index를 도입하여 보건 당국이 안전한 시설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이클론에 대비하여 보건 및 교육시설의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2007년 11월 사이클론 Sidr가 방글라데시를 덮쳤을 때 수천 명의 삶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2009년 4월 7일
<원문링크: http://www.who.int/mediacentre/news/releases/2009/world_health_day_2009_0407/en/index.html>

호주

광대역 통신망 설치로 원격 의료 서비스 확대 기대 (Broadband opens door to specialist care)

광대역 통신망이 농촌과 벽촌지역에 살고 있

는 사람들에게 노인 복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원격의료 서비스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 서비스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정부의 이번 430억 달러 규모의 광섬유 네트워크 건설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원격 의료 서비스의 잠재력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현재로서는 대면상담만이 의료급여 제공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의원과 기타 개인병원의 의사들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호주의 원격 의료 서비스는 지역 내 통신 설비를 갖춘 스튜디오에 환자가 방문하여 통신 기기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번 광대역 네트워크 설치가 의사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고안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머지않아 환자들이 각 가정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Brisbane 과 Mackay 사이의 원격 상담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Rockhampton 지역의 경우에는 비슷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력의 시설 사

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활용도가 낮다.

University of Queensland의 Center for Online Health 부소장인 Anthony Smith 는 사회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주요 의료 서비스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가 광대역 통신망의 설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The Australian 2009년 4월 11일
<원문링크: <http://www.theaustralian.news.com.au/story/0,25197,25314433-23289,00.html>>